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12년 6월 pp.327~351
한국세무학회

감사투입시간과 내부회계·전문공시인력의 보유가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에 미치는 영향*

김상현** · 송혜진*** · 배수진****

<요 약>

본 연구는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시간(감사시간, 비정상감사시간)과 내부공시품질의 대용치인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법인세관련 공시품질 즉,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간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투입되는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시간(비정상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시점에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과소)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는 경우에는 재무보고시점의 자산·부채가 과소계상 되어 부채비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지급법인세의 과소계상 가능성을 높여 외부이해관계들로 하여금 법인세관련 현금유출을 과소평가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부공시품질의 대용치 중에서는 회계사의 존재여부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와 낮은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경우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사 존재여부를 제외한 기타 공시전문인력의 보유나 보유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시간과 내부공시품질의 대용치인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존재한다.

〈주제어〉 감사시간, 비정상감사시간, 내부회계 및 전문공시인력, 법인세관련 공시오차

* 본 논문의 질적 향상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kimsh@dankook.ac.kr, 교신저자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shj31041@dankook.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강의전담교수, sjpae@paran.com, 공동저자

I. 서 론

이연법인세 관련 연구는 주로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Miller and Skinner 1998 ; Bauman et al. 2000 ; 전규안과 박종일 2002 ; Phillips et al. 2003 ; 이화진 2003 ; 주인기 등 2005 ; 박재환 등 2005 ; 김상현과 백원선 2006 등) 혹은 이연법인세정보의 가치관련성(이화진 등 2001 ; 전성일과 최관 2004 ; 백원선과 김상현 2005 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수치의 적정공시에 관한 연구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정확한 공시는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에 의한 자발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감사시간을 사업보고서상에 공시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투입된 노력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들은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및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문상혁 등 2005 ; 박종일과 최 관 2009 ; 최승호와 최우중 2010 등).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재무보고에서 부정이나 오류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며 자발적이고 투명한 재무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내부회계 및 전문공시인력(회계사, 변호사, 법률·재무·회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보유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역시 기업내부전문인력이 경영자의 의사결정 및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McMullen and Raghunandan 1996 ; 최종원과 이경태 2008 ; 최종원과 유혜영 2010 ; 김상현 2011 등).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지급법인세를 정확히 산출하고 나아가 자산, 부채 및 재무상태의 부정확한 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시적차이 정보의 공시가 외부감사인의 투입노력인 감사시간과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김상현 등(2009)은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간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감사품질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BIG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 경우 일시적차이의 오차와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여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가 자산·부채를 과대계상 하여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생됨을 제시하였다. 이는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고 기업 내부에 회계·전문공시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품질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차이의 오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시간의 투입정도와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법인세관련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세무보고시점의 정확한 일시적차이의 순액(차감할일시적차이-가산할일시적차이)에서 재무보고시점의 임시적 일시적차이의 순액(차감할일시적차이-가산할일시적차이)을 차감한 값을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감사시간은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감사시간은

실제감사시간과 감사시간결정모형을 이용(손성규 등 2008)하여 산출한 비정상감사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내부회계 · 공시전문인력은 사업보고서 상에 보고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2,387개(기업-년)를 최종표본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평균값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세무보고시점에 비해 재무보고시점에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과소)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사시간이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과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감소하면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될수록 재무보고시점의 자산 · 부채가 과소계상 되어 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미지급법인세의 과소계상 가능성이 높아져 외부이해관계들이 법인세관련 현금유출을 과소평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 내부의 회계 · 공시전문인력이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계사 보유여부와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낮은 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내부에 회계사를 보유한 경우,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업내부에 회계사를 보유할 경우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일시적차이에 비해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발견되었으나 유의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보유와 보유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들이 실제로 본연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과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감사시간과 내부회계 · 전문공시인력이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II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III장에서 연구방법 및 표본선택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V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투입노력인 감사시간과 내부통제를 위한 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감사시간과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감사시간은 오류발견과 공정한 보고를 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투입되는 감사인의 노력을 반영하는 측정치로서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lmrose 1986 ; Niemi 2002 ; Caramanis and Lennox 2008 ; 최 관과 백원선 1998 등). 즉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이용되고 있다(박종일과 전규안 2008 ; 권수영 등 2005 등).

구체적으로 감사시간과 관련된 연구는 실제 감사시간과 함께 감사시간결정모형을 이용한 비정상감사시간을 추정하여 정상감사시간에 초달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의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Caramanis and Lennox(2008)은 실제감사시간은 감사노력에 무관한 측정치이며, 피감사기업의 기업규모에 의해 많은 영향이 있는 측정치임을 제시하였다. 반면 비정상감사시간은 감사시간결정모형에 의해 기업규모가 여과되어 감사노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치임을 제시한 바 있다. 감사시간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문상혁 등(2005)의 연구에서는 사업보고서에 보고한 실제감사시간이 증가할 경우 기업의 이익조정을 억제하여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할 것을 예측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박종일과 최 관(2009)은 감사시간을 정상시간과 비정상시간으로 구분하여 비정상감사시간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감사시간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정상감사시간을 추정한 후, 실제감사시간에서 정상감사시간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비정상감사시간이 큰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낮게 나타나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경우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이 감소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감사시간이 이익조정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권수영 등(2005)은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시간에는 유의적 관계가 존재하며 감사시간은 이익조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초과 감사시간은 이익조정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최승호와 최우중(2010)은 감사인의 규모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여부가 이익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이익조정에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재량적발생액과 같은 추정치를 주로 이용하여 감사시간의 추

가정보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¹⁾

다음으로 내부공시품질과 관련된 내부회계 · 공시전문인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도부터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에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 및 공시전문인력(회계사, 변호사, 법률 · 재무 · 회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보유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회계 ·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재무보고에서 부정이나 오류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이고 투명한 재무보고를 유도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규제당국의 내부회계 · 공시전문인력 보유를 권장하는 등의 내부회계관리정책이 도입된 이후 관련연구는 이러한 제도가 내부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써 효과적인지를 검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부회계 · 공시전문인력이 회계처리의 보수성 및 경영자의사결정, 재무정보공시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 · 공시전문인력과 회계처리 및 경영자의사결정의 관련성에 관해 살펴본 연구를 보면, Kwack et al.(2008)은 기업내 CLO(Chief Legal Officer)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경영자에 대한 자문과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종원과 이경태(2008)는 잠재적 소송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내부에 회계 · 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업 스스로 회계자료 작성단계부터 잠재적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추가로 최종원과 유혜영(2010)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가치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증진시켜 회계정보가 기업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내부회계 · 공시전문인력과 재무정보공시 및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하는 경우 적정한 재무보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McMullen and Raghunandan(1996)은 재무보고에 문제가 없는 기업인 경우 감사위원회에 회계전문인력인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비율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상현(2011)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주주총회일 이전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되는 가결산순이익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확정되는 진정한 결산순이익 보다 과대하게 공시하는 행태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Kwack et al.(2008)은 CLO를 고용한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였으며,

1) 손성규 등(2008)은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인이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할수록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감사전 결산이익(잠정이익)과 감사후 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하였다. 이들 역시 결산이익과 보고이익의 차이는 감사인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한 부분으로 보아 재량적 발생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최종원과 이연진(2011)도 기업 내부의 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존재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이러한 예측정보의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상헌(2011)도 내부회계 및 전문공시인력에 대한 보유가 기업의 경영자의사결정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내부통제효과를 지닌 기업의 경우, 재무보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 기업의 회계처리나 경영자의 의사결정 및 재무보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관련 공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재무보고시점 및 세무보고시점간의 일시적 차이의 공시오차를 확인하고, 외부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감사시간과 내부공시품질의 대용치인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보유 간의 관련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설정

앞서 살펴본 이연법인세 관련 연구와 더불어 동 연구자료로 이용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수치가 적절히 공시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 즉, 이연법인세회계 관련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신현걸(2003)과 김상헌 등(2009)은 이연법인세회계 관련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하였다. 먼저 신현걸(2003)은 이연법인세 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명백한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임에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지적하지 않는 부실한 공시실태를 보고하였다. 특히, 김상헌 등(2009)은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간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공시의 적정성 및 기업특성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무보고시점에는 회계이익의 산출목적으로 세무조정사항을 계산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하고, 이후 세무보고시점에 정확한 세무조정을 다시 계산하여 정확한 납부세액을 보고하는 회계적 현상으로 인해, 두 시점 간에 세무조정사항의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차를 발생시키는 기업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연법인세 관련 오차는 미지급법인세 계산을 부정확하게 하여 재무상태나 회계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의 시점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을 지라도 재무보고시점에 보다 정확한 세무조정항목을 계산하여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떠한 기업 내·외부의 환경적 특성이 일시적차이의 오차를 회계정보이용자를 크게 오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생시키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외부감사의인 투입노력인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감사품질이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박종일과 전규안 2008 ; 권수영 등 2005).

본 연구는 기업이 재무보고시점 및 세무보고시점에 재무제표상 보고하는 일시적차이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일시적차이 보고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기존연구가 주로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재량적발생액과 같은 추정치를 이용하여 감사시간의 추가정보력을 검증한 것과 차별성을 갖는다.

한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은 회계상 오류나 부정의 발생가능성을 축소시켜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이 내부회계 및 전문공시인력에 대한 재무보고서상 공시를 의무화한 이후, 선행연구에서는 내부회계 및 전문공시인력의 보유가 기업의 경영자의사결정과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최종원과 유혜영 2010; 김상현 2011). 그러나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과 관련하여 보고되는 재무제표의 정확성이나 재무보고 성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보고한 이연법인세 관련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이용하여 내부회계 및 전문공시인력의 보유가 재무제표보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내부회계 및 전문공시인력을 보유한 경우 재무제표 작성단계부터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부회계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세무보고시점과 재무보고시점에 공시되는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관련 공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일시적차이 정보의 공시가 외부감사인의 노력인 감사시간과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의 투입노력과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간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외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외부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시간과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보유는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보고시점의 차이에 기인한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투입시간 및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 보유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설정하였다.

$$\text{TEMPDIFF}_t = a_0 + a_1 \text{DEBT}_t + a_2 \text{SIZE}_t + a_3 \text{ROA}_t + a_4 \text{TIME}_t + a_5 \text{BIG}_t + a_6 \text{FOR}_t + a_7 \text{OWN}_t \\ + a_8 \text{ADT}_t (\text{Ab} - \text{ADT}_t) + a_9 \text{PRO1}_t (\text{PRO2}_t, \text{PRO3}_t, \text{PRO4}_t) + \sum_k a_{10k} \text{ID}_t + \sum_k a_{11k} \text{YR}_t + e_t$$

- TEMPDIFF :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사이의 일시적차이의 오차,
 DEBT : 부채비율(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SIZE :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 한 값,
 TIME : 세무보고시점과 재무보고시점 차이일수의 자연로그 값,
 BIG :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1, Non-BIG4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ADT : 사업보고서상 실제 감사에 투입한 감사시간,
 Ab-ADT : 비정상감사시간,
 FOR : 외국인지분율,
 OWN : 대주주지분율,
 PRO1 : 기업 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PRO2 : 기업 내부에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PRO3 : 기업 내 회계사가 존재하는 인원 수,
 PRO4 : 기업 내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는 인원 수,
 ID : 산업더미(업종분류는 TS2000에 제시된 기준을 따름),
 YR : 연도더미(판측치가 k년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일시적차이의 오차(TEMPDIFF)는 김상헌 등(2009)의 연구방법에 따라 다음연도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보고되는 기초 일시적차이의 순액(세무보고시점의 정확한 일시적차이의 순액)에서 당해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보고되는 기말 일시적차이의 순액(재무보고시점의 임시적 일시적차이의 순액)을 차감한 값을 이용하였다. 추가로 기업규모의 차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이용하였다.²⁾ 이와 같이 산출된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음(-)의 값을 나타낼 경우 이는 재무보고시점에 당해 연도에 공시되는 재무제표 상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정확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비해 과대 계상 되거나, 가산할일시적차이가 과소계상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확한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과 부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2)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일시적차이의 오차 (TEMPDIFF)} &= \frac{\text{세무보고시점의 일시적차이 순액} - \text{재무보고시점의 일시적차이 순액}}{\text{기초총자산}} \\ &= \frac{\text{세무보고시점의 (차감할일시적차이 - 가산할일시적차이)} - \text{재무보고시점의 (차감할일시적차이 - 가산할일시적차이)}}{\text{기초총자산}} \end{aligned}$$

이와 같이 측정된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감사시간(ADT)과 비정상감사시간($Ab-ADT$)을 포함하였으며, 내부통제수준을 의미하는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PRO)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의 투입노력과 관련하여 감사시간(ADT)은 사업보고서에 제시된 실제 감사에 투입된 시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비정상감사시간($Ab-ADT$)은 사업보고서상에 기재된 실제감사시간과 피감사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상감사시간($Nor-ADT$)의 차이로 파악하였으며, 정상감사시간($Nor-ADT$)과 비정상감사시간($Ab-ADT$)은 선행연구 방법을 기초로 측정하였다(최관과 박종일 2006 ; 손성규 등 2008).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감사시간 결정모형을 참고하여 측정한 본 연구의 감사시간 결정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³⁾ 본 연구에서는 전체표본을 식(1)을 이용하여 기업별-연도별 기대감사시간(정상감사시간)을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begin{aligned} AHOUR_t = & b_0 + b_1 SIZE_t + b_2 CONS_t + b_3 INVREC_t + b_4 EXPT_t + b_5 CUR_t + b_6 LEV_t + b_7 ROA_t \\ & + b_8 LOSS_t + b_9 GRW_t + b_{10} OPN_{t-1} + b_{11} BIG_t + b_{12} AUDREG_t + b_{13} FOR_t + b_{14} OWN_t \\ & + \sum_k b_{15} ID_t + \sum_k b_{16} YR_t + e_t \end{aligned} \quad (1)$$

- AHOUR : 감사시간 (감사시간/총자산 * 1000),
 SIZE :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CONS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INVREC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비율 [(재고자산 + 매출채권)/총자산],
 EXPT : 수출비중 (해외매출액/총매출액),
 CUR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LEV :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ROA :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
 LOSS : 손실발생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GRW : 매출액의 변동,
 OPN : 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외의 의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BIG :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1, Non-BIG4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AUDREG : 감사인이 지정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FOR : 외국인지분율,
 OWN : 대주주지분율,
 ID : 산업더미(업종분류는 TS2000에 제시된 기준을 따름),
 YR : 연도더미(관측치가 k년도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식(1)에서 통제변수인 SIZE가 클수록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CONS의 경우는 감사시간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투입된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하였으며, INVERC는 기업의 자산 중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금액이 클수록 감사위험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기업의 수출비중이 클수록 감사에 투입된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3) 구체적인 모형은 손성규, 이은철, 정기위(2008) 논문 참고

수 있으므로 EXPT 변수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는 감사위험과 관련된 통제변수로써 CUR, LEV, OPN을 추가하였다. 이는 CUR이 낮을수록, LEV이 높을수록, OPN이 적정의견이외의 의견일수록 감사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ROA, LOSS의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경영성과와 관련된 감사위험의 대리변수로 측정하였다. 감사시간과 관련하여, ROA는 음(-)의 관련성, LOSS는 양(+)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성을 예상할 수 있는 GRW은 감사시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BIG 회계법인이 Non-BIG 회계법인에 비해 감사에 투입된 시간이 많다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추가함으로써 감사시간의 차이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비정상감사시간($Ab-ADT$)은 실제감사시간에서 식(1)에서 추정된 기대감사시간(정상감사시간)을 차감한 후, 이를 기대감사시간으로 표준화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는 식(2)와 같이 측정하였다.

$$Ab-ADT = \frac{AHOUR_{실제치} - AHOUR_{기대치}}{AHOUR_{기대치}} \quad (2)$$

다음으로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PRO) 변수는 사업보고서상 회계 및 공시전문인력 보유현황에 제시된 인원수를 더미변수 및 수준변수로 측정하였다. 즉, 기업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간 일시적차이의 오차의 발생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⁴⁾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은 사업보고서상 회계 및 공시전문인력 보유현황에 제시된 인원수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PRO1, PRO3 변수는 기업 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더미변수 및 수준변수로, PRO2, PRO4 변수는 기업 내부에 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더미변수 및 수준변수로 각각 측정하였다.

이밖에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변수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재무구조(DEBT), 기업규모(SIZE), 경영성과(ROA),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의 차이일 수 (TIME), 감사인 규모(BIG) 및 기업소유구조(FOR, OWE) 변수를 이용하였다. 우선, DEBT, SIZE와 ROA는 기업의 부채비율과 기업규모 및 경영성과가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DEBT는 기초총부채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SIZE는 기초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ROA는 기업의 경영성과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TIME의 경우 재무보고시점인 감사보고서일과 세무보고시점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날의 차이일수로

4)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란 기업 내부의 공인회계사,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공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변호사 및 재무, 법률 또는 회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를 의미한다.

자연로그를 취하여 이용하였다. BIG은 감사인 규모에 대한 대용치로 외부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1, Non-BIG4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FOR, OWN은 기업소유구조의 특성이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서 FOR은 외국인지분율, OWN은 대주주지분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및 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ID)와 연도더미(YR)를 추가하였다.

2. 표본선정

본 연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TS2000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기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 (1)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2)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기준으로 평균 $\pm 3 \times$ 표준편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기업
- (3) 12월 결산법인인면서, 2008년 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4) 대상기간 중 재무자료가 모두 존재하며, 일시적차이 및 내부회계·공시전문인력 현황을 사업보고서로 공시한 기업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은 2,387개(기업-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표본의 선정과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표본 2,673개 중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과 극단치를 제거한 최종표본은 2,387개였으며, 이 중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발생한 기업 수는 793개로 최종표본의 33.2%를 차지한다. 최종표본의 회계자료와 일시적차이에 관련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있는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서 개별적으로 추출하였다.

<표 1> 표본선정과정

표본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TS2000에 수록된 기업 중 12월말 비금융기업		495	515	534	552	577	2,673
(－)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40)	(35)	(30)	(30)	(45)	(180)
	극단치 제거	(12)	(23)	(21)	(24)	(26)	(106)
최종표본으로 선정된 기업		443	457	483	498	506	2,387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에서는 전체기업(n=2,387개)을 대상으로 가설검정을 위한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표 2> 기술통계치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TEMPDIFF	-0.0086	0.9074	-0.9674	0.0000	0.8420
DEBT	0.3036	0.2441	0.0003	0.2388	0.9959
SIZE	12.5193	1.4090	8.8335	12.2539	16.8169
ROA	0.2162	0.7243	-1.2217	0.0401	8.1280
FOR	11.1148	15.5717	0.0000	3.9900	94.1100
OWN	41.8054	15.9925	2.6800	41.4200	90.0000
TIME	3.7503	0.3929	1.3863	3.286	4.4886
BIG	0.6695	0.4705	0.0000	1.0000	1.0000
ADT	7.8919	11.5697	0.0059	3.7766	81.1550
Ab-ADT	3.0412	5.6951	-0.9966	1.0153	38.6323
PRO1	0.1684	0.3743	0.0000	0.0000	1.0000
PRO2	0.2058	0.4040	0.0000	0.0000	1.0000
PRO3	0.3553	1.2770	0.0000	0.0000	20.0000
PRO4	0.5647	1.9175	0.0000	0.0000	26.0000

TEMPDIFF :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사이의 일시적차이의 오차,

DEBT : 부채비율(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SIZE :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 값,

FOR : 외국인지분율,

OWN : 대주주지분율,

TIME : 세무보고시점과 재무보고시점 차이일수의 자연로그 값,

BIG :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1, Non-BIG4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ADT : 사업보고서상 실제 감사에 투입한 감사시간,

Ab-ADT : 비정상감사시간,

PRO1 : 기업 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PRO2 : 기업 내부에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PRO3 : 기업 내 회계사가 존재하는 인원 수,

PRO4 : 기업 내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는 인원 수,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시적차이 오차의 평균은 -0.0086 으로 이는 총자산 대비 약 0.86% 정도의 오차가 발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일시적차이의 부정확한 공시는 자산과 부채가 평균적으로 증가되는 방향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시간(ADT)의 평균은 7.8919이며, 전체감사시간을 정상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비정상감사시간($Ab-ADT$)은 3.0412의 값을 보고하였다. 부채비율(DEBT)은 30.36%이었고, 총자산이익률(ROA)은 21.62%로 나타났으며, 외부감사인 중에서 BIG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이 전체기업의 약 66.95%로 선행연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나타내는 PRO변수의 경우 기업 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기업(PRO1)은 약 16.84%이고, 기업 내부에 전문공시인력이 존재하는 경우(PRO2)는 약 20.58%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과 평균차이 분석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될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제시하고, 주요 독립변수인 비정상감사시간의 크기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 간 평균차이분석을 제시하였다. 먼저 <표 3>에는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⁵⁾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일시적차이의 오차와 관련하여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SIZE, OWN이며,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ADT, $Ab-ADT$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감사시간 및 비정상감사시간은 일시적차이의 오차와 음(-)의 관련성을 보여 감사시간이나 비정상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될수록 차감할일시적차이(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과소)계상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감사투입시간과 관련하여 ADT와 $Ab-ADT$ 은 공통적으로 DEBT, ROA, FOR, OWN, BIG와 각각 (+), (+), (+), (-), (+)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높은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고, 기업의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외국인지분율이 높으며, 대주주지분율은 낮은 기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VIF의 값이 1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VIF의 값을 분석해 본 결과 4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상관관계분석

	TEMP DIFF	DEBT	SIZE	ROA	FOR	OWN	TIME	BIG	ADT
DEBT	-0.022 (0.293)								
SIZE	0.074 (0.000)	-0.341 (0.000)							
ROA	0.007 (0.716)	0.082 (0.000)	-0.178 (0.000)						
FOR	-0.010 (0.613)	0.051 (0.013)	0.124 (0.000)	0.249 (0.000)					
OWN	0.037 (0.075)	-0.047 (0.023)	-0.045 (0.029)	-0.053 (0.009)	-0.101 (0.000)				
TIME	-0.004 (0.851)	0.041 (0.044)	0.010 (0.642)	0.009 (0.675)	0.080 (0.000)	0.011 (0.582)			
BIG	-0.009 (0.678)	0.056 (0.006)	0.103 (0.000)	0.115 (0.000)	0.206 (0.000)	-0.001 (0.956)	-0.119 (0.000)		
ADT	-0.046 (0.025)	0.151 (0.000)	0.025 (0.225)	0.187 (0.000)	0.173 (0.000)	-0.084 (0.000)	-0.027 (0.184)	0.144 (0.000)	
Ab- ADT	-0.040 (0.051)	0.142 (0.000)	0.019 (0.350)	0.236 (0.000)	0.171 (0.000)	-0.076 (0.000)	-0.019 (0.361)	0.136 (0.000)	0.993 (0.000)

1) () : p-value

2) 주요 변수 설명은 <표 2> 참조.

다음으로 <표 4>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비정상감사시간의 크기([Panel A] 참조)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 유무([Panel B] 참조)에 따른 주요변수 간 평균차이분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상감사시간의 차이에 따라서는 DEBT, SIZE, ROA, FOR, BIG, PRO1, PRO2, PRO3, PRO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 유무에 따라 TEMPDIFF와 DEBT를 제외한 SIZE, ROA, FOR, OWN, TIME, BIG, ADT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주요변수의 차이분석

[패널 A] 비정상감사시간의 크기(부호)에 따른 평균비교					
	Ab-ADT (-) (n=774)		Ab-ADT (+) (n=1613)		t-tes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EMPDIFF	-0.008	0.062	-0.009	0.102	0.211
DEBT	0.486	0.191	0.423	0.193	7.416***
SIZE	12.486	1.400	12.588	1.426	1.653*
ROA	0.120	0.384	0.587	1.347	-13.174***
FOR	8.802	13.847	12.225	16.222	-5.053***
OWN	42.402	15.879	41.519	16.044	1.262
TIME	3.762	0.375	3.744	0.401	1.045
BIG	0.633	0.482	0.687	0.464	-2.620***
PRO1	0.134	0.341	0.185	0.388	-3.084***
PRO2	0.161	0.368	0.226	0.419	-3.677***
PRO3	0.229	0.741	0.416	1.462	-3.362***
PRO4	0.307	1.173	0.688	2.176	-4.559***

[패널 B]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 보유유무에 따른 평균비교					
	PRO (n=490)		Non-PRO (n=1897)		t-test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TEMPDIFF	-0.005	0.093	-0.010	0.090	-0.998
DEBT	0.453	0.198	0.441	0.193	-1.203
SIZE	12.844	1.477	12.435	1.379	-5.762***
ROA	0.587	1.347	0.120	0.384	-13.174***
FOR	18.202	17.326	9.284	14.539	-11.615***
OWN	37.508	16.030	42.915	15.798	6.734***
TIME	3.694	0.421	3.765	0.384	3.556***
BIG	0.810	0.393	0.633	0.482	-7.514***
ADT	12.038	16.053	6.821	9.818	-9.407***

- 1) *,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주요 변수 설명은 <표 2> 참조.

3. 일시적차이의 오차와 감사시간 및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

본 절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치인 감사시간과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 종속변수인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감사시간의 투입정도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보유정도에 따라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발생시키는 차별적 효과를 통해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선 <표 5>는 전체기업(2,387개)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및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Panel A]는 실제로 투입한 총 감사시간과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Panel B]에서는 비정상감사시간과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5> TEMPDIFF과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text{TEMPDIFF}_i = a_0 + a_1\text{DEBT}_i + a_2\text{SIZE}_i + a_3\text{ROA}_i + a_4\text{TIME}_i + a_5\text{BIG}_i + a_6\text{FOR}_i + a_7\text{OWN}_i \\ + a_8\text{ADT}_i(\text{Ab} - \text{ADT}_i) + a_9\text{PRO1}_i(\text{PRO2}_i, \text{PRO3}_i, \text{PRO4}_i) + \sum_k a_{10k}\text{ID}_i + \sum_k a_{11k}\text{YR}_i + e_i$$

[패널 A] 전체표본(2004~2008(n=2,387) : 총감사시간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DEBT	0.004	0.49	0.004	0.49	0.005	0.58	0.005	0.56
SIZE	0.006	3.95***	0.006	3.95***	0.006	4.10***	0.006	4.01***
ROA	0.005	1.66*	0.005	1.66*	0.005	1.80*	0.005	1.61
FOR	-0.000	-0.95	-0.000	-0.91	-0.000	-0.86	-0.000	-0.88
OWN	0.000	2.01**	0.000	2.01**	0.000	1.94*	0.000	1.99*
TIME	-0.004	-0.69	-0.004	-0.76	-0.004	-0.79	-0.004	-0.79
BIG	-0.003	-0.67	-0.003	-0.64	-0.002	-0.61	-0.002	-0.59
ADT	-0.000	-2.56**	-0.000	-2.51**	-0.000	-2.52**	-0.000	-2.54**
PRO1	0.009	1.80*						
PRO2			0.005	1.02				
PRO3					0.002	1.03		
PRO4							0.001	0.93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R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009		0.008		0.008		0.008	

〈표 5〉 TEMPDIFF과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계속)

[패널 B] 전체표본(2004~2008(n=2,387) : 비정상감사시간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DEBT	0.004	0.43	0.004	0.44	0.004	0.53	0.004	0.50
SIZE	0.006	3.94***	0.006	3.95***	0.006	4.09***	0.006	4.01***
ROA	0.005	1.74*	0.005	1.75*	0.005	1.89*	0.005	1.71*
FOR	-0.000	-0.11	-0.000	-0.96	-0.000	-0.91	-0.000	-0.92
OWN	0.000	2.04**	0.000	2.04**	0.000	1.97**	0.000	2.02**
TIME	-0.003	-0.68	-0.004	-0.74	-0.004	-0.77	-0.004	-0.78
BIG	-0.003	-0.71	-0.003	-0.68	-0.003	-0.65	-0.003	-0.63
Ab-ADT	-0.001	-2.34**	-0.000	-2.29**	-0.001	-2.30**	-0.000	-2.31**
PRO1	0.009	1.77*						
PRO2			0.005	0.98				
PRO3					0.001	0.99		
PRO4							0.000	0.84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R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008		0.007		0.007		0.007	

1) *,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 정의

- TEMPDIFF :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 사이의 일시적차이의 오차,
 DEBT : 부채비율(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SIZE :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ROA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 값,
 FOR : 외국인지분율,
 OWN : 대주주지분율,
 TIME : 세무보고시점과 재무보고시점 차이일수의 자연로그 값,
 BIG :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1, Non-BIG4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ADT : 사업보고서상 실제 감사에 투입한 감사시간,
 Ab-ADT : 비정상감사시간,
 PRO1 : 기업 내부에 회계사가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PRO2 : 기업 내부에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PRO3 : 기업 내 회계사가 존재하는 인원 수,
 PRO4 : 기업 내 공시전문인력이 존재하는 인원 수,

각 패널에서 [Model 1]~[Model 4]는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더미변수와 수준변수로 측정된 값을 사용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Model 1]은 기업내부에 회계사의 존재여부(PRO1), [Model 2]는 기업내부에 전체 공시전문인력의 존재여부(PRO2), [Model 3]은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회계사수(PRO3), [Model 4]는 기업내부에 존재하는 전체 공시전문인력수(PRO4)로 측정된 변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감사시간(ADT)으로 측정한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한 [패널 A]에서는 실제 감사시간과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면 재무보고시점에 가급적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차감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계상하거나 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계상 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투입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수록 재무보고시점의 자산·부채가 과소계상 되어 부채비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지급법인세의 과소계상을 통해 외부이해관계들에게 법인세관련 현금유출을 과소평가하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측정된 PRO1, PRO2, PRO3, PRO4는 회계사의 존재여부로 측정된 PRO1에서만([Model 1]) 일시적차이의 오차와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재무보고시점에 차감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계상 하는 방향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내부에 전문공시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공시가 실제 보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의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다른 측정치에서는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비정상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한 [패널 B]의 분석결과는 [패널 A]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즉, 비정상감사시간과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상감사시간이 감소하면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차감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계상 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회계사의 존재여부로 측정된 PRO1만([Model 1])이 일시적차이의 오차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은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실제 발생한 기업(793개)만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및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와 동일하게 [Panel A]는 실제로 투입한 총감사시간과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Panel B]에서는 비정상감사시간과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패널에서 [Model 1]~[Model 4]는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을 더미변수와 수준변수로 측정된 값을 각각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총 감사시간(ADT)으로 측정한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한 [패널 A]에서는 실제 총 감사시간(ADT)과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PRO)과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상감사시간($Ab - ADT$)으로 측정한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한 [패널 B]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 TEMPDIFF와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begin{aligned} \text{TEMPDIFF}_i = & a_0 + a_1\text{DEBT}_i + a_2\text{SIZE}_i + a_3\text{ROA}_i + a_4\text{TIME}_i + a_5\text{BIG}_i + a_6\text{FOR}_i + a_7\text{OWN}_i \\ & + a_8\text{ADT}_i(Ab - \text{ADT}_i) + a_9\text{PRO1}_i(\text{PRO2}_i, \text{PRO3}_i, \text{PRO4}_i) + \sum_k a_{10k}\text{ID}_i + \sum_k a_{11k}\text{YR}_i + e_i \end{aligned}$$

[패널 A] TEMPDIFF가 존재하는 표본(2004~2008($n=793$)) : 총감사시간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DEBT	0.015	0.61	0.015	0.62	0.017	0.70	0.016	0.66
SIZE	0.017	3.75***	0.017	3.76***	0.017	3.98***	0.017	3.82***
ROA	0.014	1.54	0.013	1.46	0.015	1.68*	0.014	1.61
FOR	-0.000	-1.16	-0.000	-1.13	-0.000	-1.09	-0.000	-1.14
OWN	0.001	1.86*	0.001	1.86*	0.001	1.80*	0.001	1.85*
TIME	-0.014	-0.90	-0.015	-0.96	-0.015	-0.99	-0.015	-0.98
BIG	-0.009	-0.70	-0.008	-0.66	-0.008	-0.68	-0.008	-0.64
ADT	-0.001	-2.63***	-0.001	-2.60***	-0.001	-2.61***	-0.001	-2.67***
PRO1	0.025	1.64						
PRO2			0.013	0.87				
PRO3					0.005	1.05		
PRO4							0.003	0.95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R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026		0.024		0.024		0.024	

〈표 6〉 TEMPDIFF과 감사투입시간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계속)

[패널 B] TEMPDIFF가 존재하는 표본(2004~2008(n=793) : 비정상감사시간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DEBT	0.013	0.56	0.014	0.57	0.015	0.65	0.014	0.61
SIZE	0.017	3.73***	0.017	3.75***	0.174	3.96***	0.017	3.82***
ROA	0.015	1.63*	0.014	1.55	0.016	1.77*	0.015	1.70*
FOR	-0.000	-1.20	-0.000	-1.18	-0.000	-1.14	-0.000	-1.18
OWN	0.001	1.88*	0.001	1.87*	0.001	1.83*	0.001	1.86*
TIME	-0.013	-0.89	-0.014	-0.95	-0.015	-0.97	-0.015	-0.97
BIG	-0.009	-0.075	-0.009	-0.71	-0.009	-0.72	-0.008	-0.69
Ab-ADT	-0.002	-2.37***	-0.002	-2.33***	-0.002	-2.35***	-0.003	-2.39***
PRO1	0.025	1.62						
PRO2			0.012	0.83				
PRO3					0.004	1.02		
PRO4							0.003	0.86
I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YR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025		0.022		0.023		0.022	

1) *,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주요 변수 설명은 <표 5> 참조.

즉, <표 5>의 결과와 동일하게 외부감사인 투입노력인 비정상감사시간이 감소하면 정확한 세무보고시점에 비해 임시적인 수치를 계산하는 재무보고시점에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감소(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과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회귀분석결과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과 기업이 보유한 회계사와 같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 이연법인세 관련된 재무공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감사시간의 투입정도와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일시적차이의 공시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감사시간은 총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은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세무보고시점의 정확한 일시적차이의 순액(차감할일시적차이-가산할일시적차이)에서 재무보고시점의 임시적 일시적차이의 순액(차감할일시적차이-가산할일시적차이)을 차감한 값을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2,387개(기업-년)를 최종표본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평균값이 음(-)의 값으로 관찰되어 전체적으로 세무보고시점에 비해 재무보고시점에 차감할일시적차이를 과대계상하거나 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계상 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오차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부정확한 공시가 전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감사시간과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시간이 감소할수록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내부에 회계 및 공시전문인력과 일시적차이의 오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회계사 보유여부와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낮은 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내부에 회계사 보유하는 경우 차감할(가산할)일시적차이를 과소(과대)계상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차이의 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업내부에 회계사를 보유할 경우 일시적차이의 오차는 정확한 일시적차이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미약하게나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통제하거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이익조정이나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과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의 보유와 보유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전문인력들이 실제로 본연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연구대상기간을 최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시적차이를 포함한 법인세관련 공시오차의 발생 원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의 일시적차이가 다르더라도 반드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금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감사시간과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이 법인세관련 공시오차에 미치는 현상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을 뿐 이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일시적차이의 오차를 발생시키는 세무조정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감사품질의 측정치인 비감사서비스와 지정감사인 및 감사인 교체 등을 다양하게 검증하는 연구와 더불어 내부통제관련 측정치인 내부회계 및 공시전문인력 등이 법인세 이외 항목의 공시관련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수영 · 김문철 ·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 연구 제30권 제4호 : 47 - 76.
- 김광윤 · 심태섭. 2004.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보고서 공시사항의 검토와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제1호) : 41 - 62.
- 김상현 · 백원선. 2006. “재무보고비용과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1호 : 193 - 224.
- 김상현 · 배수진 · 심태섭. 2009. “재무보고시점과 세무보고시점의 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공시의 적정성과 기업특성”. 회계학연구 제34권 제2호 : 105 - 139.
- 김상현. 2007. “감사품질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8권 제1호 : 47 - 78.
- 문상혁 · 지현미 · 최 관. 2005. “결산일 차이가 감사보수, 감사시간, 그리고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 135 - 165.
- 박재환 · 이만우 · 오문성. 2005.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2권 제2호 : 125 - 146.
- 박종일 · 전규안. 2008.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3권 제2호 : 65 - 109.
- 박종일 · 전규안 · 노희천. 2009.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일시적 차이 및 순이연법인세 변동 정보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 225 - 260.
- 박종일 · 최 관. 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 257 - 293.
- 백원선 · 김상현. 2005. “미래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 감사품질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0권 제1호 : 99 - 120.
- 신현걸. 2003. “이연법인세 인식 및 공시 현황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9권. 55 - 74.
- 손성규 · 이윤철 · 정기위. 2008. “감사시간이 경영자의 결산 당기순이익 정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7(4) : 1 - 30.
- 이화진 · 김 혁 · 백원선. 2001. “이연법인세의 가치평가와 기업의 자본비용”,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 165 - 194.
- _____. 2003. “이익조정과 이연법인세차의 선택”. 회계와 감사연구 제39권(12월) : 1 - 31.
- 전규안 · 박종일. 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 107 - 135.
- 전성일 · 최 관. 2004. “이연법인세차의 실현가능성과 가치관련성”.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 65 - 86.
- 정용근 · 권기룡. 2003. “이연법인세회계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4권 제1호 : 7 - 33.
- 주인기 · 최원옥 · 염지인. 2005. “이익조정 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237 - 275.

- 최 관 ·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49 – 75.
- 최승호 · 최우중. 2010. “내부통제 중요 취약점이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후 4년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9권 제3호 : 31 – 53.
- 최종원 · 유혜영. 2010. “기업내부 회계 · 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회계정보의 질과 기업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52호 : 93 – 120.
- _____ · 이경태. 2008. “잠재적 소송비용이 내부 회계 · 공시전문인력 보유와 외부 감사인 선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7호 : 1 – 28.
- _____ · 이연진. 2011. “기업내부 회계 · 공시 전문인력의 보유와 경영자 예측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회계저널 제20권 제4호 : 157 ~ 184.
- Bauman, C. C., M. P. Bauman, and R. F. Halsey. 2000. Do Firms Use the Deferred Tax Asset Valuation Allowance to Manage Earning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 Becker, C., M. DeFond, J. Ji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Spring) : 1 – 24.
- Caramanis C. and C. Lennox. 2008.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 : 116 – 138.
- Francis, J., E. Maydew. and H. Sparks. 1999. The Role of Big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8 : 17 – 34.
- Kwak, B., B. Ro, and I. Suk. 2008. Corporate In-House Legal Counsel as Voluntary Governance Mechanism and Quality of Voluntary Disclosure : The Case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Working paper.
- McMullen, D., and K. Raghunandan. 1996. Enhancing Audit Committee Effectiveness. *Journal of Accountancy* Vol. 182(August) : 79 – 82.
- Miller, G. S. and D. J. Skinner. 1998. Determinants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 10. *The Accounting Review* 73(April) : 213 – 233
- Niemi, L. 2002. Do Firms Pay for Audit Risk? Evidence on Risk Premiums in Audit Fees after Direct Control for Audit Effort.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6 : 37 – 51.
-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Spring) : 97 – 110.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2003. Earnings Management :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 (April) : 491 – 521.
- Teoh, S. and T. Wong. 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s. *The Accounting Review* 68 (April) : 346 – 367.

The Effect of Audit Effort and Internal Specialists of Accounting Practice and Disclosure on Reliability of the Disclosure on Deferred Tax

Kim sanghun* · Song hyejin** · Pae suji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effect of audit hours(abnormal audit hours), a proxy for external audit quality and internal specialists of accounting practice and disclosure, a proxy for internal audit quality on the error in temporary differences that are subject to book-tax timing differences(differences between points of time of a financial report and a tax return).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re is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udit hours, abnormal audit hours and the error in temporary differences, indicating that higher audit hours, abnormal audit hours i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debt ratio through the error in temporary differences. Second, there is low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possession of internal specialists of accounting practice(CPA) and the error in temporary differences. Thir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ratio of internal specialists of accounting practice and disclosure and the error in temporary differences.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 effort of external auditor and internal specialists of accounting practice can have an important effect on reliability of the disclosure on deferred tax.

〈Key words〉 audit hours, abnormal audit hours, internal specialists of accounting practice and disclosure, error of the disclosure on deferred tax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 Full-time Lecture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